

제11절 매화2리(梅花二里)

1. 마을의 자연환경

동쪽은 매화천을 끼고 있으며 서쪽은 남수산(嵐岵山), 남쪽은 매화천 상류로 매화1리 기양리와 인접되고, 북쪽은 금매2리인 몽천동과 경계를 이루고 있다. 마을회관은 1978년 건립되었으며 경로당과 공용이다.

2. 마을의 역사

매화2리는 구장터, 가치마, 최촌(崔村), 윤촌(尹村)의 자연부락으로 이루어졌고, 마을 이름을 매화(梅花)라고 부르는 세 가지 이유가 전한다. 하나는 이 마을의 형상이 남수산 정상에서 바라보면 흡사 매화 꽃잎과 같고, 또 부근의 산봉우리가 매화꽃과 같다는 데서 연유되었고, 또 하나는 조선조 광해군 때 강원관찰사(江原觀察使) 기자헌(奇自獻)이 이곳을 지나다 마을 주위의 들에 해당화가 만발하여 장관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고 야다강매(野多江梅)라는 시(詩)를 읊었던 연유로 매야(梅野)라 하다가 후에 매화(梅花)로 바뀌었다. 또 조선 선조 때 윤여호(尹汝虎)가 부인 공인(恭人) 영양 남씨(英陽南氏)가 이곳에 정착하면서 조상이 살던 영덕군 매일동(梅日洞)의 매(梅)자를 따서 매화(梅花)라 하였다고 전하고 있다.

1) 가치마(柯村)

번덕골의 가치골에 살던 영양 남씨(英陽南氏)가 이곳으로 이주(移住)하면서 먼저 살던 곳의 이름을 따서 이곳을 가치마다 하였다고 전한다.

2) 구장터

조선 후기부터 일제강점기 초기까지 이곳에 오일장이 열렸으나 후에 면 소재지가 매화1리로 옮겨감에 따라 장터도 매화1리로 옮겨 갔으므로 이곳을 구장터라 부르게 되었다.

3) 윤촌(尹村)

파평 윤씨(坡平尹氏)가 기성면 삼산리에 입향하여 살다가 1558년경에 이 마을에 와서 개척(開拓)하여 대대(代代)로 살았으므로 윤촌(尹村)이라 하였다 한다.

4) 최촌(崔村)

강릉 최씨(江陵崔氏)가 지금의 북면 고목리 무령현(武靈峴)에 입향하여 살다가 임진왜란을 전후하여 이곳에 와서 최씨(崔氏)가 집단을 이루고 살았으므로 최촌이라 전하고 있다.

3. 가구 분포

73세대가 거주하며 파평 윤씨(坡平尹氏), 강릉 최씨(江陵崔氏), 담양 전씨(潭陽田氏), 영양 남씨(英陽南氏), 신안 주씨(新安朱氏), 평산 신씨(平山申氏)가 세거하고 있다.

4. 마을의 특징

1) 남수산(嵐岫山)

영양군의 일월산(日月山) 지맥(支脈)으로 이 지역에서 가장 높고[475m] 웅장한 산이다. 남사고(南師古) 선생이 이곳에서 학문을 연구하였다는 전설이 있고, 또 임진왜란 전에 일본의 풍신수길(豐臣秀吉)이 조선을 정복하기 위해 현소(玄蘇)라는 일본의 고승(高僧)을 밀파(密派)하여 명산의 정기(精氣)를 쇠진(衰盡)시킬 목적으로 남수산에 쇠말뚝을 박았다는 전설이 전한다. 한발이 심할 때 남수산 정봉(頂峰)에서 기우제(祈雨祭)를 올리면 효험을 얻는다고 한다.

2) 동제(洞祭)

동리 중앙에 있는 큰 팽나무 아래에 우물이 있었는데 매년 동민들이 제관(祭官)을 엄선하여 식수(食水)로 인한 모든 잡병이 없도록 제사를 올리고 기도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상수도가 설치되어 우물은 매몰되어 놀이터로 변했다.

3) 만흥학교(晩興學校)

1907년 경상북도 울진군 매화면 매화리에 설립된 근대 교육기관이다. 1878년 7월 11일 경상북도 울진군 죽변면 후정리 매정동에서 태어난 주진수는 당시 애국 계몽 단체였던 신민회의 울진지역 활동의 중심인물이었다. 그는 구국에 대한 대의를 품고 지방 인재 양성을 통한 신문명 보급을 하기 위해 1907년 10월 울진의 곽종욱·남상정·전오규·주병웅·진규환·전주석·최정순 등과 함께 울진 최초의 근대 사립학교인 만흥학교를 설립하였다. 1910년 한일 병합 이후 일제에 의해 강제 폐쇄됐다.

4) 울진공립농민학교지(蔚珍公立農民學校地)

초등학교[당시 보통학교] 졸업자에 한하여 1년간의 선진농업 기술교육 과정으로 1939년

에 매화2리[지금의 해군부대 자리]에 설립된 학교로서, 1940년 1월에 제1회 졸업생 30여 명을 배출하였고, 1944년에는 5회 졸업생을 배출하고 폐교되어 울진공립여자실천학교가 되었다.

5) 울진공립여자실천학교지(蔚珍公立女子實踐學校地)

초등학교 졸업자 중에서 선발하여 2년간 양잠, 재봉 등의 과정을 이수하는 학교로서 1944년 초에 매화2리에 설립되었고 1945년 초에 울진읍으로 이전되었다.

6) 울진기미독립만세기념탑

울진군 매화면 매화리에 있는 일제강점기 3·1독립만세운동을 기념하기 위하여 만든 탑이다. 울진군민들이 1991년 8월 15일 광복절을 맞아 울진기미독립만세기념탑건립추진위원회의 주관으로 탑을 세웠다. 전체 2,462평의 부지에 대리석으로 제작된 사다리꼴 형태의 단을 만들고, 위에 피라미드 형태의 스테인리스 철탑을 세웠으며, 철탑 내부 가운데에 검은색 화강암으로 만든 기념비를 세워놓았다. 앞쪽에는 향로석이 있다. 단의 앞면 가운데에는 2단의 계단이 있고, 계단 왼쪽과 오른쪽 측면에는 만세운동을 형상화한 부조가 있다.

탑의 높이는 15m이며, 기념비의 높이는 3.3m이며 비의 앞면에 ‘울진기미만세기념탑(蔚珍己未萬歲記念塔)’이라 새겼다. 기념비 뒤에는 직사각형의 검은색 화강암으로 제작된 석판을 세우고 탑을 세운 취지문 및 건립에 참여한 인사의 이름을 새겨 넣었다.

제12절 신흥1리(新興一里)

1. 마을의 자연환경

동쪽은 마을 앞으로 소하천(小河川)이 흐르고 7번 국도를 건너 오산1리와 경계를 하고 있다. 서쪽은 백호등(白虎嶺)을 넘어 기양1리와 인접하며, 남쪽은 이울동(以蔚洞)과 접하고, 북쪽은 1km 거리에 면 소재지인 매화1리가 있다. 2006년에 마을회관이 신축되어 경로당과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2. 마을의 역사

1) 대잠(大岑) 혹은 대점

1520년경에 순흥 안씨(順興安氏)인 언문(彦文)이 이 마을을 개척하여 살면서 마을이 높